

TRANS- HUMANITIES

Title : 『다빈치 코드』와 페미니즘

Da Vinci Code and Feminism

Author(s) : 최태연 (CHOI Taeyon)

Source : *Trans-Humanities*, Vol. 4 No. 3 (2011), pp. 173-191

Published by :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URL : <http://eiheng.ewha.ac.kr/page.asp?pageid=book10&pagenum=060600>

Online ISSN : 2383-9899

All articles in *Trans-Humanities* are linked to the Homepage of KCI and
Ewha Institute for the Humanities and can be downloaded:

www.kci.go.kr & <http://www.trans-humanities.org/>



이화여자대학교
EWHW WOMANS UNIVERSITY

『다빈치 코드』와 페미니즘

최태연

1. 들어가는 말

『다빈치 코드』(DaVinci Code)¹⁾에서 모나리자(Mona Lisa)를 빼면? 또는 『다빈치 코드』에서 막달라 마리아(Maria Magdalena)를 빼면? 전자를 빼면 댄 브라운은 이 소설의 도입부를 달리 써야 할 것이고, 후자를 빼면 이 소설은 막을 내려야 할 것이다. 모나리자와 막달라 마리아! 이 두 사람은 모두 서구 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여성이다. 이 두 여성은 소설 『다빈치 코드』에서도 종교와 문화의 여성성(femininity)을 드러내는 중심 역할을 한다. 필자는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에서 페미니즘(feminism)이라는 코드가 이 소설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전제라고 본다. 필자가 이 논문에서 해명하고자 하는 물음은 댄 브라운이 주장하는 페미니즘이 어떤 형태로 그의 소설을 구성하고

최태연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 기독교철학 전공

- 1) Dan Brown, *The Da Vinci Code*, N. Y., London: Doubleday, 2003.
한국어 판: 댄 브라운 『다빈치 코드』1, 2, 이창식 번역감수, 양선아 옮김, 서울: 대교베텔스만, 2004.

있고 그가 왜 페미니즘을 그의 기본 모티브로 삼았는가이다. 먼저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페미니즘(feminism)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류의 모든 사회와 문화, 사상과 종교를 가부장적인 남성우월주의가 지배해 왔다고 보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페미니즘은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적 성(젠더)차별을 끝장내고 여성의 권리와 이익을 회복하기 위해 여성의 사회적 인식과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이론 및 사회 운동의 기본사상이다.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은 젠더 불평등을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 대중적인 논의의 장으로 이끌어내고자 한다. 소수의 보다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들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성정체성인 젠더(gender)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인 성정체성인 섹스(sex)마저도 사회적 환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남성중심적 가족구조 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위계질서, 기업과 정부, 단체에 존재하는 질서를 탈남성화되고 성차별 없는 민주주의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페미니즘은 성차별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체를 변혁하는 사회운동으로 나아가고 있다(메리 위스너-헝크스 13-39).

필자는 이 글에서 페미니즘(feminism)의 이러한 주장과 기독교(Christianity)의 관계를 전반적으로 다루려고 하지는 않는다. 다만 소설 『다빈치 코드』에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페미니즘적 시각을 검토해 보고 그 타당성과 의미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필자는 『다빈치 코드』의 이야기 구성의 배경에 강한 페미니즘이 자리잡고 있다고 본다. 작가 댄 브라운이 기독교를 해석하는 기본 동기가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왔다는 말이다. 실제로 브라운 자신이 적극적인 페미니스트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²⁾ 적어도 『다빈치 코드』에서 그의 기독교에 대한 해석과 비판은 페

2) 댄 브라운은 그의 공식홈페이지에서도 자신과 페미니즘과의 관계를 언급하지 않는다. 참고: Dan Brown, 「The Author」, The Official Website of Dan Brown, 2005. Random House, Inc. 2011.10.15.
(<http://www.danbrown.com>)

미니즘의 관점을 차용했다고 할 수 있다. 댄 브라운은 강한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기독교의 모든 내용을 소위 ‘음모론’(conspiration theory)으로 재구성하여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숨겨왔고 억압해 왔던 진실을 흥미있는 대중소설로 재구성해 내는 데 성공했다. 그 결과가 전 세계에서 5000만권 가까이 팔렸다고 하는 소설 『다빈치 코드』이다. 필자는 기독교에 대한 브라운의 페미니스트 비판은 역사적으로 왜곡된 근거에 기초해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가 제시하는 역사적 근거에 상관없이 그의 비판이 함축하고 있는 기독교의 남성중심주의의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면 처음 질문으로 되돌아 가보자! 『다빈치 코드』는 왜 페미니즘을 선택했는가? 댄 브라운에게는 적어도 두 가지의 동기가 있을 수 있다.

첫째로 그가 기독교의 근본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페미니즘이다. 이 소설에서 기독교는 구약성서에 존재한다는 여성신 ‘쉐키나’와 그러한 여신을 숭배하는 여사제들을 철저히 제거한 결과 성립된 종교이다. 반면에 기독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조차 ‘페미니스트’라고 단언한다. 이런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기독교를 보게 될 때, 남성 위주의 성직자 제도를 운영해 온 기독교, 특히 로마 가톨릭 교회의 남성중심주의가 그의 표적이 된다는 사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³⁾

두 번째로 브라운은 남녀 간의 성행위를 신성한 합일로 보는 밀교(密敎)적 관점을 강하며 표명하고 있다. 그는 『다빈치 코드』의 중심 소재

3) 그러나 로마가톨릭 교회에서 여성성에 대한 숭배가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바로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앙인데, 댄 브라운은 이 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다. 마리아 신앙은 현재에도 개신교와 교리적으로 가장 심한 마찰을 일으키는 신학적 문제로 가톨릭교회에서 성모 마리아는 신(神)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서 거룩한 여성성과 모성을 가진 특별한 인간으로서 신자들의 신심을 이끌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참고: *The Da Vinci Code*, Conservapedia, 2006. Andrew Schlafly. 2011.10.15.
(http://www.conservapedia.com/The_Da_Vinci_Code#Part_VI:_Feminism_in_The_Da_Vinci_Code)

이며 적대자(antagonist)인 기독교와 시온수도회를 모두 ‘섹스 모티브’로 해석하고 있다. 기독교의 창시자인 나사렛 예수는 독신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한 남자이며 막달라 마리아를 거룩한 ‘성배’로 여기고 보호하려는 시온수도회도 집단성행위 의식을 통해 그들의 신성한 사명을 이어나가는 모임으로 묘사된다. 결국 두 조직은 원래 섹스를 신성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동일하다는 것이다. 사실 이런 종교적 성행위의 문제는 본래 페미니즘과는 거리가 멀다. 그렇기 때문에 댄 브라운이 기독교와 시온수도회의 수수께끼를 섹스로 풀려는 의도는 페미니즘에서 나왔기 보다는 현대 대중문화의 주요 코드인 ‘섹스 모티브’에서 나왔다고 해야 한다. 대중이 가장 흥미있어 하고 듣고 싶어 하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댄 브라운은 이 소설의 주인공 랭던(Robert Langdon)을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고대 유산과 생리학은 우리에게 성(性)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혼을 채우기 위해 내재된 길이라는 거죠. 하지만 현대 종교는 성을 부끄러운 것으로 묘사하고 성에 대한 욕망을 악마의 손길이라도 되는 양 가르칩니다”(브라운, 『다빈치 코드』2권 114). 브라운에게 남녀의 성적 결합은 단순히 육체적 욕구충족으로 끝나지 않고 영혼의 합일로 가는 행위이다. 섹스를 모든 규범으로부터 해방시켜 종교적인 신성한 행위로 고양하는 브라운의 밀교적 ‘섹스 모티브’는 여성의 신성(神性)을 전제한다. 여성과의 성적인 합일은 여성신과의 합일을 그 근원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밀교적 ‘섹스모티브’는 페미니즘을 옹호하는 장치가 된다.

이제부터 『다빈치 코드』에 들어있는 밀교적 섹스모티브를 통한 페미니즘의 정당화 논리의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가 보자. 이 실타래를 따라가다 보면 브라운의 네 가지 매듭이 손에 느껴질 것이다. 이 매듭을 풀어가는 필자의 관점은 성서에 근거한 역사적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한 기독교도의 입장이다.

2. 『다빈치 코드』의 페미니스트 코드

1) 남녀 양성신(兩性神)으로서 구약성서의 신

『다빈치 코드』 2권에서 랭던은 예수 그리스도와 막달라 마리아의 후손인 소피(Sophie Neveu)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초기 유대인은 신중의 신인 솔로몬의 사원에 남자 신뿐만 아니라, 그와 대등한 상대의 여신 세키나도 함께 머물렀다고 믿었다. 영혼의 완벽함을 추구하는 남자는 여사제를 방문하기 위해 신전에 왔다. 여사제와 사랑을 나누었고, 육체의 합일을 통해 신성함을 경험하는 것이다. 유대 용어인 야훼(YHWH)는 신을 기호화 한 것이다. 이것은 남자다움을 나타내는 ‘야’와 이브의 헤브라이어 이전 이름인 ‘하’가 자웅동체의 물리적 결합을 한 여호와라는 이름에서 유래했다.

브라운은 하버드대학의 ‘상징연구가’(symbolologist) 랭던 교수의 입을 빌려 유대인들이 믿었던 야훼(여호와)신이 남성신과 여성신이 결합한 자웅동체의 양성신이며 그 중 여성신의 이름이 ‘세키나’(שכינה)라고 주장한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단어풀이를 한다. 신의 히브리어 이름(자음)인 야훼(YHWH: יהוה)는 남성적인 신을 가리키는 ‘야’(YH: ה)와 여성적인 신을 가리키는 ‘훼’(WH: ה)로 구성된 합성어이고 바로 이 ‘훼’는 최초의 여성 하와(HWH: חווה)의 ‘와’(WH: ה)에서 유래되었다. 이렇게 합성된 신의 이름이 ‘야훼’라는 것이다. 이러한 아나그램식 짜맞추기를 하는 브라운의 의도는 명백하다. 그의 의도는 기독교의 뿌리인 유대교에서도 원래는 남신과 더불어 여신을 숭배했고 남녀 신 사이의 성관계가 모든 생명현상의 근원이라는 주장을 정당화하는데 있다.

그러나 현대의 구약성서 연구와 성서고고학 연구는 이스라엘 종교에 여신이나 여사제가 존재했거나 성전에서 여사제와 종교적인 성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문헌적으로나 고고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브레바드 S. 차일즈 52-53).⁴⁾ 구약성서를 경전으로 하는 유대교에서 여신숭배는 우상숭배에 다름 아니다. 구약성서에서 남녀 양성신에 대한 내용은 바알(Baal)과 아스다룻(Ashtoreth)을 섬기는 가나안 종교에서 나타나며 야웨신에 의해 철저히 부정되고 심판된다. 구약성서에 따르면 심지어 아스다룻을 숭배했던 일부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야웨(여호와)와 바알/아스다룻 종교를 구별한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룻을 섬기므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 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사무엘상」 12:10).

쉐키나(שכינה)는 여신의 이름이 아니라, ‘장막’, ‘쉼’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이며 「신명기」 12:11에서처럼 “여호와와의 임재하심”을 의미한다(G. Braulik 97). 여성신의 이름을 ‘쉐키나’ 신의 이름의 둘째 음절을 인간인 하와의 와(WH)에서 찾은 것은 상당히 작위적인 해석이다. 이 점에서 브라운의 관심사는 자신의 주장을 역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엄밀하게 논증하는데 있지 않고 오히려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독자들을 설득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2) 예수의 아내이며 후계자인 막달라 마리아

『다빈치 코드』라는 추리소설의 중심인물은 막달라 마리아이다. 브라운은 이 여인을 기독교와 시온수도회의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로 삼는다. 브라운은 『다빈치 코드』에서 모든 사건의 배후 조정자인 티빙

4) 예일(Yale)의 구약신학자 차일즈는 구약의 신이 왕, 아버지, 남편과 같은 남성적 대명사로 표현되고 있는 동시에 어머니, 암탉, 출산의 고통의 이미지로도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 양성적 표현은 남녀신의 결합을 표현하려는 의도가 전혀 아니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신이 모든 피조물과 전적으로 다른 존재로서 만물을 통치하고 지탱해주는 신임을 강조하는데 있다고 차일즈는 판단한다.

(Teabing)의 입을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초기 교회는 예언자인 인간 예수가 신성한 존재라고 세상을 설득해야 했어요. 따라서 예수의 삶 중에 세속적인 면을 다루고 있는 복음서는 모두 성서에서 제외시켜야만 했어. 그런데 성서의 초기 편집자들에게 불행한 일이겠지만, 세속적인 특정 주제가 복음서들에서 끊임없이 불거져 나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마리아 막달레나의 결혼 문제였어.(『다빈치 코드』2권 12-13)

보시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 은폐를. 예수 그리스도는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였어. 아가씨, 마리아 막달레나는 성스러운 그릇이었지.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족 혈통을 담았던 잔이었어. 혈통을 품은 자궁이자, 신성한 열매를 퍼뜨릴 줄기였지!(『다빈치 코드』2권 21).

종교적 천재지만 한 인간에 불과했던 나사렛 예수는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했고 자녀를 낳았다는 말이다. 그뿐이 아니다. 브라운에 따르면 이 예수는 십자가 처형을 예상하고 자기의 아내인 막달라 마리아를 자신을 따르던 교회공동체의 지도자로 삼았다고 한다. 예수는 페미니스트였기 때문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단순한 애정 이상의 문제였던 거지. 복음서에 나온 이 시점은, 예수가 곧 십자가에 처형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 자신이 알고 있던 때였어. 그래서 예수는 자기가 죽은 뒤에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한 지시를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내렸거든. 그 결과 베드로는 여자 밑에서 단역을 맡게 된 것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거지. 나는 베드로가 성차별주의자였다고 단언할 수 있네 ... 그 것이 계획이었지. 예수는 원래 페미니스트였거든. 그래서 자기 교회

의 미래를 마리아 막달레나의 손에 둘 생각이었지. (『다빈치 코드』2권 18-19)

브라운의 본격적인 페미니스트적 기독교 비판은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원래 막달라 마리아를 후계자로 세우려던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은 야심 많은 베드로와 다른 남성 제자들에 의해 좌절되었고 막달라 마리아는 이들의 위협을 피해 피신할 수밖에 없었다. 교회의 여성 지도권은 남성들의 폭력에 의해 누탈되었다는 주장이다. 티빙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시온에 따르면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당할 당시 마리아 막달레나는 임신 중이었다고 해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리스도의 아이의 안전을 위해 그녀는 성지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지. 예수의 신실한 삼촌인 아리마테아의 요셉의 도움을 받아, 막달레나는 프랑스로 은밀하게 몸을 숨겼어. 그 당시엔 갈리아라고 불렀던 곳이지. 그녀는 프랑스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에서 안전한 장소를 찾았어. 그녀가 딸을 낳은 것도 여기 프랑스였어요. 아이의 이름은 사라였고. (『다빈치 코드』2권 29-30)

극중 인물 티빙을 앞세운 브라운의 주장은 상당한 논리적 비약을 감수하고 진행된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도피했다고 치더라도 왜 하필 멀고 먼 프랑스로 피신했는지에 대해 브라운은 어떤 타당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의 무덤을 제공했던 아리마테아 요셉이 예수의 삼촌이라는 주장도, 그 당시에 유대인 공동체가 프랑스에 있었다는 주장도 역사적인 증거를 결여하고 있다. 모든 것은 기독교를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비판하려는 의도와 프랑스와 파리를 소설의 무대로 사용하려는 의도에서 미리 짜여진 소설적 장치로 보인다.

3) 콘스탄티누스에 의해 추방된 여신숭배와 여사제

브라운은 그리스도의 후계자 자리를 놓고 각축했던 베드로와 막달라 마리아의 대결구도를 현존하는 기독교와 여성전체의 대결구도로 이끌어 간다. 브라운에 의하면 남성주도의 가부장적인 교회를 만드는 악역을 맡은 인물은 기독교를 공인한 최초의 로마황제 콘스탄티누스이다. 다음의 지문에서 브라운은 콘스탄티누스가 어떻게 역사적 기독교를 가부장적 남성우월주의로 변질시켰는지를 고발하고 있다.

시온 수도회는 콘스탄티누스 대제와 그 뒤를 이은 남성 계승자들이 세상을 모계 중심의 종교에서 가부장제의 기독교로 성공적으로 개조했다고 믿고 있어요. 신성한 여성을 악마같이 만들어 버리는 선전, 선동에 열을 올림으로써, 현대 종교에서 여신의 존재는 영원히 소멸시켜 버렸다는 얘기죠. (『다빈치 코드』 1권 192)

그 결과 유대교에 뿌리를 둔 종교들 -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 로부터 여성을 존중하는 전통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고 브라운은 개탄한다. 브라운의 페미니즘적 열정이 또 한 번 분출하는 장면이다. 기성종교로부터 여성의 추방은 남녀 간의 자연스러운 성관계가 악마적으로 정죄되는 동시에 성관계의 상대자인 여성이 악마적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 때, 영혼의 계몽을 위해 필수적인 반쪽으로 찬양받던 여성은 세계 모든 신전으로부터 추방당했다. 유대교의 랍비, 가톨릭의 사제, 이슬람 성직자 그 중 여성은 없다. 신성 결합은 남녀의 자연스러운 성적 결합을 통해서 각자의 영혼이 완전해지는 것을 의미했다. 이 신성 결합의 강령은 부끄러운 강령으로 바뀌어 버렸다. 신과 이야기 위해 한 때 상대 여성과 성적 결합을 요구하던 고결하던 남자들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성적 충동을 악마의 작업, 특히 악마가 선호하는 공범자와 협력해서 만드는 충동으로 여겨 두려워했다. 그 공범자란 … 여자였다. (『다빈치 코드』1권 193)

브라운은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제 교회를 통해 권력을 얻은 남자들은 중세 내내 “이교도와 여성숭배 종교들을 재교육시킨다는 명목”(『다빈치 코드』1권 192)으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고 3백년에 걸친 마녀사냥을 통해 500만의 여성을 학살했다고 고발한다. 이 숫자는 히틀러가 학살한 유대인의 수를 연상하게 만든다.⁵⁾

가톨릭 종교재판소는 인류역사에서 가장 핏물을 적셨다고 감히 부를 수 있는 책을 발간했었다. 그 책 〈마녀의 망치〉는 자유로이 사고하는 여자들은 위험하다는 생각을 세상에 불어 넣었다. 그리고 성직자에게 이런 여자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고문하고, 파멸시키는지 가르쳤다. 교회에 의해 마녀가 된 여자들은 학자, 여사제, 집시, 신비주의자, 자연예찬론자, 약초를 모으는 자,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는 모든 여자 들이었다 … 3백 년에 걸친 마녀 사냥으로 교회는 5백 만 명에 달하는 여성을 말뚝 위에서 태워 죽인 것이다.

이리하여 브라운의 페미니즘적 기독교 비판은 절정에 도달하게 된다. 막달라 마리아를 거부한 남성중심의 기독교회는 마침내 히틀러와 나치에 버금가는 범죄 집단이 되고 만 것이다. 따라서 브라운에게 기독교의 참회와 개선은 필연적인 요청으로 다가온다. 즉 강제로 빼앗은 교회의 지배권을 포기하고 여성을 본래의 위치로 복권시키는 길이다. 페미니즘을 받아들이는 교회만이 교회의 바른 길이라는 주장이 『다빈치 코드』에 숨겨져 있는 것이다.

5) 브라운의 이 주장이 너무 과장되었기 때문에 영화 〈다빈치 코드〉(론 하워드 감독, 2006)에서는 희생된 여성의 수가 10만으로 축소 조정된다.

4) 페미니즘적 기독교의 근거로서 영지주의

덴 브라운은 기독교를 남성지배의 역사로 규정하고 여신 및 여성의 신성함을 복귀시키려는 그의 페미니즘을 입증하는데 영지주의(Gnosticism) 문서를 그 전거로 사용한다. 원래 영지주의는 신비하고 고결한 신(神)적 지식을 얻음으로써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고대 그리스 종교와 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믿음이 기독교와 만나 영혼을 가두고 있는 육체와 물질세계를 극단적으로 무시하거나 육체적 쾌락을 자유방임적으로 허용하는 두 종류의 양상을 보여주는 기독교의 한 분파가 된 것이다. 브라운은 이 영지주의 신앙을 기록한 영지주의 문서들이 콘스탄티누스에 의해 불태워진 신약성서의 원래 형태였다고 주장한다.

콘스탄티누스는 새로운 성서 제작을 의뢰하고 재정적으로 뒷받침 했소.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특성을 얘기하는 복음서들은 빼버리고 그를 신처럼 묘사한 복음서만을 골라 아름답게 윤색했지요. 초기 복음서들은 금지되거나 모아서 불태워졌소.(『다빈치 코드』1권 359)

브라운이 말하는 이 초기 복음서들이 1946년 이집트의 나그 함마디(Nag Hammadi)에서 발견된 영지주의 복음서들이다. 브라운은 『도마 복음』 같은 나그 함마디 복음서나 신약성서의 위경(僞經, Pseudepigrapha)중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막달라 마리아와 가장 친밀했다는 페미니즘적 주장의 근거로 사용한다.

티빙은 다른 구절을 가리켰다. ‘이 구절은 마리아 막달레나 복음서에서 나온거야.’ 소피는 막달레나의 말을 담은 복음서가 있는지 몰랐다. 그 구절을 읽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길,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모르게 그 여자와 얘기했나? 우리가 모두 돌아가서 그 여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단 말인가? 주님은 그 여자를 우리보다 더 좋아하는가? (『다빈치 코드』 2권 17-18).

여기에서 브라운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었고 베드로와 다른 남자 제자들이 그녀를 얼마나 질투했는가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브라운이 이러한 텍스트의 구절들을 선택한 목적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여성의 우위와 지도력을 보여주려는데 있다.

3. 『다빈치 코드』의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적 평가

필자는 여기서 초기 기독교에 대한 브라운의 페미니즘적 해석과 역사적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얼마나 정당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기독교의 남성지배가 콘스탄티누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진단은 역사적 근거가 희박하다. AD 325년 콘스탄티누스에 의해 소집된 니케아 종교회의에서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신학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지, 어느 성서가 정경인지를 확정하지 않았다. 그 때까지 오늘날의 『신약성서』 27권이 정경(canon)으로 확정되지 않았던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서방의 로마교회에서는 397년 카르타고에서 열린 아프리카 교회회의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지도아래 정경을 확정했다(필립 샤프 483). 따라서 콘스탄티누스의 주도아래 영지주의 성서를 현재의 신약성서성서로 변조했다는 주장은 억측에 불과하다.

둘째, 1400년부터 1800년 사이에 이루어진 마녀사냥의 희생자가 500만 명의 여자들이라는 브라운의 주장은 상당히 의도적인 역사적 왜곡이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마녀사냥의 희생자의 수는 많이 잡아도 10만 명을 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희생자 가운데 20-25%는 여성

이 아닌, 마법을 행한 혐의로 고발된 남성들이었다.⁶⁾ 마녀사냥을 학대자 남성 대 피학대자 여성이라는 구도로만 보기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많은 여성들이 여성에 의해 고발되었기 때문이다.⁷⁾ 브라운은 독자들이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을 연상하도록 500만이라는 숫자를 아무 근거 없이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역사적 왜곡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브라운이 제기한 교회의 남성지배에 대한 비판이 정당한가의 문제이다. 실제로 이러한 비판은 기독교 내부에서도 계속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성서는 이 문제에 대해 두 가지의 원칙을 제시해 준다.

첫째, 남성과 여성은 모두 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이고 서로를 필요로 한다. 구약성서 「창세기」 1:27-28은 신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신이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고 선언한다. 남성과 여성은 똑같은 신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며 함께 신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뜻이다. 신약성서에서도 「고린도전서」 11:11-12에서 이 사상은 다시 한 번 확인된다. “그러나 주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신에게서 났느니라.” 그러므로 성서를 신의 말씀으로 믿는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믿는다. 남성이 모든 면에서 여성보다 우월하거나 여성을 지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독교가 여신숭배나 종교적 성교의식을 거부했다고 해서 여성의 권리를 무시했다는 브라운의 논지는 설득력이 없다.

둘째, 동시에 성서는 남성의 영적(spiritual) 주도권을 가르치고 있는

6) Brian P. Levack, *The Witch-Hunt in Early Modern Europe*, N. Y.: Longman, 1987. 19-21. (리처드 어베니스, 『다빈치 코드에 숨은 거짓과 진실』, 서울: 라이트 하우스, 2004. 143에서 재인용.)

7) Deborah Willis, *Malevolent Nurture: Witch-Hunting and Maternal Power in Early Modern England*,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5 참조.

것이 사실이다. 「고린도전서」11:7-9은 “남자는 신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라고 하여 남성의 우선권과 주도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디모데전서」3:12에는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중용할 지니라”고 권유하면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남편의 주도권을 강조하고 있다. 이 구절들에 근거하여 기독교가 남성 중심의 교회제도를 운영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 점이 『다빈치 코드』에서 집중적으로 공격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서가 가르치는 기독교의 진리는 일면적이지 않고 다면적이다. 신의 절대주권적 예정(predestination)과 자유에 따른 인간의 책임(responsibility)을 동시에 인정하는 것이 성서적인 것처럼 남녀의 동등성과 동시에 남성의 영적 주도권을 인정하는 것은 성서적이라고 본다. 즉 남성과 여성이 인간의 존귀함을 인정받고 신의 축복의 대상임을 인정하는 동시에 가정과 교회에서 남성의 영적 주도권도 인정하는 길을 찾는 것이 기독교의 과제이다. 여성의 목사안수 문제도 브라운의 비판대로 남성의 주도권이 여성의 존엄성과 영성을 무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인정될 수 있다.⁸⁾

8) 페미니스트들이 문제 삼는 현실 사회의 양성 불평등을 인정하면서 성차별을 극복하려는 복음주의 기독교의 입장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보완주의(complementarian view)로서 조직신학자 웨인 그루뎀(Wayne Grudem)이 대변하는 입장이다. 또 하나는 평등주의(egalitarian view)로서 여성신학자 메리 스투어트 밴 르우윈(Marry Stewart van Leeuwen)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두 입장 모두 성서를 영감된(inspired) 신의 말씀으로 존중하며 양성문제에 대한 성서의 메시지를 발견하여 성차별의 현실을 개선하고자 한다. 그러나 남녀의 동등성과 차이를 교회와 가정에서 적용할 때, 두 입장의 간격이 벌어지게 된다. 먼저 보완주의자들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가치와 존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점에서 남녀평등을 적극적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창조세계와 가정에서 맡은 역할에서 양성의 차이가 있다고 본다. 창조를 통해 주어진 남녀 간의 평등성과 차이를 동시에 인정하고 사는 것이 바로 선(goodness)이다. 보완주의자들은 성서는 교회와 가정에서 다스리고 가르치는 역할을 남자에게 부여한다고 믿는다.

또 한가지 지적되어야 할 것은 브라운이 그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영지주의와 나그 함마디 문서들을 무원칙적으로 인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그의 주장에는 여러 가지 내적 모순이 담겨 있다.

첫째, 나그 함마디 문서는 4-5세기에 이집트의 후기 문자인 콥트어로 쓰여진 그노시스 문서들이다. 이 문서에 나타나는 사상은 전형적인 이원론(dualism)으로서 예수를 그노시스를 가진 천상의 신적인 인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나그 함마디 문서들은 1세기 후반에 쓰여진 신약성서 보다 훨씬 후에 작성되었다. 그러므로 현재의 복음서가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에 만들어졌고 그 이전에 영지주의 복음서를 교회에서 사용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다. 더욱이 브라운이 인용한 마리아 막달레나 복음서는 나그 함마디 문서에 속하지 않고 2세기에 쓰여진 위경 중의 하나이다.

둘째, 영지주의 복음서들의 기본 사상은 영지주의 전문가 쿠르트 루

보완주의자 웨인 그루웬은 “성경은 우리에게 다스리는(governing) 직분과 가르치는(teaching) 직분의 일부가 여성에게 부적합하다고 말씀한다”고 믿는다. 이 가르침에 따라 담임목사와 책임있는 부목사직, 당회원 또는 운영위원, 총회대표와 노회원, 성례전 집행자, 구역이나 셀 리더, 성경 및 신학 교수, 교회의 성경교사는 남성에게 부여된 직분이다(Wayne Grudem 85).

반면에 평등주의자들은 창조 시에 주어진 남녀의 동등성을 교회와 가정과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실현하고자 노력한다. 밴 르우윈은 성서신학자 길버트 벨레 지키안의 연구(Gilbert Belezikian, *Beyond Sex Roles: What the Bible Says About a Woman's Place in Church and Family*, 2nd ed, Grand Rapids: Baker, 1985)에 도움을 받아 창조 때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책임있는 다스림(responsible dominion)의 직분이 주어졌다고 본다. 여성은 성차(sexual difference)에도 불구하고 ‘남성과 대등한 돕는 자’로 창조되었다. 남성과 여성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함께 일했으며 서로를 동역자로 존중했다. 그러나 「창세기」3:16의 타락 이후 남성과 여성의 관계는 심각한 왜곡을 겪게 된 결과, 샬롬(shalom)을 목적으로 하는 다스림(dominion)이 무자비한 군림(domination)이 되어 버렸다. 밴 르우윈은 남성이 창조시에 부여받은 교회와 사회의 리더십과 가정에서의 머리됨(headship)을 말할 때, 본래의 창조의 질서와 동시에 타락의 현실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많은 크리스천들이 남자의 머리됨을 여성을 징계하고 통제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성경적인 머리됨은 “애정어린 종된 리더십”이다(밴 르우윈 49, 50, 270).

돌프(Kurt Rudolph)의 지적대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신적인 지혜(sophia)와 불꽃(spark)을 얻어야 한다는 점이고 이를 얻기 위해서는 물질과 육체의 세계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천상의 구원자이지 결코 일반적인 육체적 인간이 아니다(Rudolph 57). 이 점에서 브라운은 영지주의의 기본원리를 무시하고 종교적 성행위와 나사렛 예수의 인간성을 부각시키려는 그의 주장을 위해 정반대의 사상을 가진 텍스트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4. 나가는 말

덴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가 던져주는 주된 메시지는 기독교가 본래 여신과 여성에 의해 주도되던 페미니즘적 종교였지만, 남성들의 반란에 의해 주도권이 뒤바뀐 후, 여성에 대한 억압과 폭력으로 점철된 종교라는 것이다. 그는 이 주장을 하기 위해 페미니스트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항하는 베드로와 남자 제자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이후의 남성중심의 기독교에 대항한 시온수도회라는 대결구도를 창작해 내었다. 그러나 그의 페미니즘은 역사적 기독교의 실제와는 다르게 허구와 과장으로 엮어낸 상상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그가 주장하는 기독교의 여신적 기원과 초기의 여성리더십은 근거가 빈약하다. 그러나 이 소설을 통해 그가 일방적 가부장주의라는 기독교의 현실적 문제점을 암묵적으로 문제제기한 점은 기독교가 진지하게 숙고해야 할 문제이다. 덴 브라운의 페미니즘은 편향된 허구적 상상력의 결과지만, 기독교는 이 문제를 현실 속에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참고문헌

- 덴 브라운. 『다빈치 코드』1, 2. 이창식 번역감수. 양선아 옮김. 서울: 대교베텔스만, 2004. (Dan Brown, *The Da Vinci Code*, N. Y., London: Doubleday, 2003의 한국어판)
- 라은성, 차동엽. 『다 빈치 코드의 족보』. 서울: 동이, 2005.
- 류호준 역음, 『여성이어 영원하라.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여성』. 서울: 대서, 2010.
- 리처드 어베니스. 『다빈치 코드에 숨은 거짓과 진실』. 서울: 라이트 하우스, 2004.
- 메리 위스너-헝크스. 『젠더의 역사』. 노영순 옮김. 서울: 역사비평사, 2006.
- 벤 르우윈. 『신앙의 눈으로 본 남성과 여성』. 윤귀남 옮김. 서울: IVP, 1999.
- 브레바드 S. 차일즈. 『구약신학』. 박문재 옮김.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8.
- 어윈 루치. 『다 빈치 코드 깨기』. 이용복 옮김. 서울: 규장, 2004.
- 필립 샤프. 『니케아 이전의 기독교』(교회사전집 2). 이길상 옮김.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4.
- Belezikian, Gilbert. *Beyond Sex Roles: What the Bible Says About a Woman's Place in Church and Family*. 2nd ed. Grand Rapids: Baker, 1985.
- Braulik, G. "Deuteronomium"1-16, 17. *Die Neue Echter Bible*, hrsg. v. J. Ploeger/J. Schreiner. Wuerzburg: Echterverlag, 1986.
- Brown, Dan. *The Da Vinci Code*. N. Y./London: Doubleday, 2003.
- Grudem, Wayne. *Evangelical Feminism and Biblical Truth*. Sisters, Oregon: Multnomah, 2004.
- Levack, Brian P. *The Witch-Hunt in Early Modern Europe*. N. Y.: Longman, 1987.
- Rudolph, Kurt. *Gnosis*. San Francisco: Harper, 1987.
- Willis, Deborah. *Malevolent Nurture: Witch-Hunting and Maternal Power in Early Modern England*.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5.
- Brown, Dan. 「The Author」. The Official Website of Dan Brown. 2005. Random House, Inc. 2011.10.15. <<http://www.danbrown.com>>
- The Da Vinci Code*. Conservapedia, 2006. Andrew Schlafly. 2011.10.15. <http://www.conservapedia.com/The_Da_Vinci_Code#Part_VI:_Feminism_in_The_Da_Vinci_Code>

Da Vinci Code and Feminism

Choi, Taeyon
(Baekseok University)

This paper discusses the feminist motive to the *Da Vinci Code*, an extremely popular novel by Dan Brown. His reinterpretation of historical Christianity is a radically feminist one because of four reasons: 1) the biblical God Yahweh (Jehovah) was a bisexual (hermaphroditic) God; 2) Jesus was the first “feminist” and was married to Mary Magdalene, who was intended by Jesus to be head of the Church rather than the apostle Peter; 3) the Emperor Constantine consolidated male power in the Church and collated the Bible; and 4) the Gnostic Gospels suggests a feminist origin of Christianity. I think that there is too little substance or documentation for Dan Brown’s “feminist” theory. In the Judeo-Christian tradition, the biblical God does not *truly* have gender, although he is represented as father, king, and husband, for he is not a physical creature that has male or female gender. There is no reliable document supporting the marriage of Jesus with a woman. Furthermore, there is no reason to believe Jesus a “feminist,” in the social context of the first century. It is not true that the Roman Emperor Constantine strengthened the male-dominated church. It is historically true that Constantine invited about 300

bishops from across the Roman Empire to the Council of Nicea (325 AD). But these bishops were already male, and women did not hold such positions. A common characteristic of Gnosticism is paternalism rather than feminism. Even if Brown's feminist critique went the wrong way, the problems of paternalism in the Church should necessarily be examined through a genuinely biblical understanding of the Christian faith.

주제어: 다빈치 코드(*Da Vinci Code*), 페미니즘(feminism), 기독교 (Christianity), 영지주의(gnosticism), 가부장주의(paternalism)

논문제출일: 2011. 08. 15

심사완료일: 2011. 09. 10

게재확정일: 2011. 09. 15